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계획 공고 안내

-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일반대·전문대 40개교를 선정하여 일자리 밖 청년 4,000명 지원
- 첨단인재형·실전인재형 두 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상담·경력설계·취업지원을 연계한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구축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전윤종)은 4월 29일(수)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공고를 통해 참여 대학을 모집한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최근 준비중 청년 증가, 일자리 미스매칭 심화 등에 대응하여,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과 사회진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6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283억 원을 활용하여 일반대와 전문대 총 4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당 연간 100명 이상, 총 4,000명 규모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비중 청년 등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비재학생 청년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의 다양한 역량 수요와 진로 수요를 반영하여 '첨단인재형'과 '실전인재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첨단인재형은 기존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운영 기반을 활용하여 첨단분야 중심의 교육과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이며, 실전인재형은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함께 직무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AI, AI Transformation)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이다.

2026년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인재형은 기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 대학의 지원대상을 비재학생 청년까지 확대하는 유형으로, 20개교(일반대 15개교, 전문대 5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존의 교육 기반과 대학-기업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청년의 첨단분야 실무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실전인재형은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함께 직무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AI, AI Transformation)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형으로, 20개교(일반대 10개교, 전문대 10개교)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비전공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초 이해와 활용 역량을 높이는 공통과정을 운영하고, 대학별 강점 분야와 실제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 기반 교육, 기업 공동 연구 과제(프로젝트) 등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출 역량을 지원한다.

<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계획(안) >

	(유형1) 첨단인재형	(유형2) 실전인재형
참여대학 요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66개교(88개 사업단)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대학 및 제2조 4호의 전문대학
지원규모	20교(일반대 15교, 전문대 5교)	20교(일반대 10교, 전문대 10교)
지원단가	7억 원(기존 부트캠프 사업비에 추가 지원)	7억 원(신규 선정 지원)
주요내용	청년(비재학생)에게 첨단산업 부트캠프 교육프로그램 및 경력설계, 사회활동 등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청년(비재학생)에게 기업과 함께 실습 중심 교육 및 AI 실전 직무 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셋째, 단순한 직무교육에 그치지 않고,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를 함께 구축할 계획이다. 대학은 청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참여 청년의 모집부터 교육, 상담, 취업 및 경력 설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기초 학습 보완, 생활 문해력 프로그램, 팀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마음건강 회복 지원 등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구직 준비도 검사와 진로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참여 청년의 성장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넷째, 대학과 기업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수료 이후에는 대학-기업 공동 명의 수료증, 디지털 배지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하여 청년의 학습 경험과 역량을 가시화할 예정이다. 대학 여건에 따라 시간제 등록제, 마이크로 디그리 등과 연계한 학위 취득 지원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단기 교육 이수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학위과정이나 경력개발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대학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통합관리 플랫폼(NAIS)을 활용하여 대학의 청년 모집과 교육과정 안내를 지원하고, 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디지털 배지 발급, 취·창업 및 진학 성과관리, 사업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첨단인재형의 경우 기존 첨단산업 분야 협업기관의 기반 시설과 전문가 자원을 활용하고, 실전인재형의 경우 신규 협력기업 발굴 등을 지원하여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준비중 청년이 대학과 기업이 공동 설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새로운 진로를 찾고 사회 진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개요

【별첨】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계획

담당 부서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현 (044-203-7251)
		담당자	사무관	지혜정 (044-203-7254)
	평생교육지원관 전문대학지원과	책임자	주무관	함정연 (044-203-7255)
		담당자	과 장	이운식 (044-203-6415)
담당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전략실	책임자	서기관	유수민 (044-203-6416)
		담당자	실 장	최인영 (02-6009-3300)
			연구원	정규영 (02-6009-3305)

□ **사업 개요**

- (목적) 청년(비재학생)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을 제공하여 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지원유형) 첨단인재형(유형1), 실전인재형(유형2)
 - (유형1)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중 청년(비재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20개교
 - (유형2) 인문·사회·예술,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과 함께 청년층의 AX 실전 직무 역량 함양을 지원할 20개교
- (지원규모) '26년, 총 283억원(사업관리비 포함), 총 4,000명 내외
 - ※ (유형1) 20개교 x 교당 7억원(기존 부트캠프 사업비에 추가 지원) / (유형2) 20개교 x 교당 7억원
 - ※ 대학별 예산 등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2년차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기간) 총 1년 6개월('26.9월 ~'28.2월)
 - ※ 일부 과정이라도 7월부터 신속하게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권장

	(유형1) 첨단인재형	(유형2) 실전인재형
지원대상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66개교(88개 사업단*) * 인공지능 40개 반도체 28개 이차전지 4개 바이오 4개 미래차 4개 디스플레이 3개 항공우주 3개 로봇 2개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대학 및 제2조 4호의 전문대학
지원규모	20개(일반대 15개, 전문대 5개)	20개(일반대 10개, 전문대 10개)
지원단가	7억원(기존 부트캠프 사업비에 추가 지원)	7억원(신규 지원)
주요내용	청년(비재학생)에게 첨단산업 부트캠프 교육프로그램 및 경력설계, 사회활동 등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청년(비재학생)에게 기업과 함께 실습 중심 교육 및 AX 실전 직무 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참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개요>

- ▶ (사업개요) 대학-기업이 함께 대학생(재학생) 대상으로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AI 등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 양성
- ▶ (운영현황) 인공지능(40개), 반도체(28개), 이차전지(4개), 바이오(4개), 디스플레이(3개), 항공우주(3개), 미래차(4개), 로봇(2개), 총 8개 분야 88개 사업단(교당 100명 이상)